새 채

▶은의 세계(위수정 지음)=작가가 지난 4년간 써온 8편의 작품이 묶였 다. 소설은 확고하고 고정된 사실의 세계가 아닌 불분명하고 유동적인 세계로 독자를 이끈다. 소설 속 인물 들은 각자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 거나 숨겨야 할 것을 말함으로써, 서



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택

한다. 문학동네. 1만4500원.

▶이까짓, 생존(삼각커피 지음)=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, 돈도 잘 번다 면 좋겠지만,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. 저자는 꿈과 돈,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 기를 숨김없이 들려준다. 좋아하는



일을 오래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씩식하게 해내 며, 그 사이 터득한 삶의 지혜를 전한다. 봄름. 1만2000원.

▶밥 한술, 온기 한술(원경 지음)= 원각사 무료급식소 안에서 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와 심곡암 주지로서의 일상과 사유가 담겼다. 한 명의 수행 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깨달음도 진솔하게 풀어낸다. 저자는 "내면의 허기를 느끼는 많은 이들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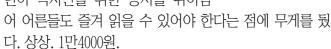


호하는 우리나 20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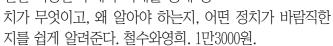
정치

게, 온기 가득한 밥상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" 고 전했다. 담앤북스. 1만5800원.

▶올해의 좋은 동시 2021(권영상 외)=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각종 매체에 발표된 신작 동시 가운데 59 인의 작품 59편을 가려 뽑아 한자리 에 모았다. 선정위원들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동시 역시 어 린이 독자만을 위한 동시를 뛰어넘



▶선생님, 정치가 뭐예요?(배성 호·주수원 지음)=책은 어린이가 정 치와 관련해 궁금해 하거나 꼭 알아 야할 부분을 36개 질문과 답변을 통 해 살펴본다. 민주주의, 다수결, 선거 와 투표권, 언론 자유 등 정치와 관 련된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정



▶다양한 문화의 끝판왕, 동남아시 아(박소현 지음)=어린이들이 쉽고 재 미있게 동남아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다소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는 역사 와 지리를 넘어 종교, 언어, 문화, 음 식, 의복, 어린이, 기후, 교통수단, 경 제 등 현재적 시점과 실용적 관점으



로 동남아시아를 소개한다. 사계절. 1만3500원. 오은지기자

'인간은 만물의 척도' 란 자만심 벗어나야

스티븐 샤비로의 '사물들의 우주'

동료 피조물의 민주주의 속 얽히고설킨 우리 자신 봐야

그는 수 버크라는 작가가 쓴 소설 '세미오시스' (2018)와 '인터퍼런 스' (2019) 속 이야기를 꺼냈다. 두 소설은 식물이 가장 고도로 감각 적인 형태의 생명체로 판명된 머 나먼 행성을 인간이 식민지로 삼 으려는 시나리오를 상상했다. 인 간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 행성의 지적인 식물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. 지배는 불가능하지만 협상은 잘 통할 수 있다.

미국의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 인 스티븐 샤비로는 '사물들의 우 주'에서 이 같은 과학소설을 예시 하며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자 통 치자로 보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 진다.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(1861~1947)가 거의 한 세기 전에

제기했던 질문을 '사변적 실재론' 과 '신유물론'을 통해 새롭게 바 라본 책이다.

지은이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 히고 있듯, '사물들의 우주'는 기 후위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다루지 않는다. 그러나 환경을 오랫동안 파괴해온 힘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. 인간 존재가 의미와 가치의 중심에 홀로 서있다는 가정이다. 그는 "인간이 그 힘과 성취에 있어 서 유일무이하고 전체로서의 우주 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믿음은, 우리가 그것의 풍요로움에 의지하 며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구 를 심각하게 착취하고 고의로 파괴 하는 행위를 부채질해왔다"고 했 다. 사회경제적, 정치적 요인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을 테지만 적어도 인간중심주의적 사 고가 달콤해보이는 문화적 환경과 알리바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.

화이트레드는 일찍이 우리 자신



을 동료 피조물들의 민주주의 속 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물었 다. "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계의 일부로 여기면서 더는 그것을 지 배하지 않을 때, 세계에 대한 우리 의 이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? " 저자는 "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자만심을 벗어던져 버릴 필요가 있다"며 세계와 그 속에서 완전히 얽히고설킨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화이트헤드가 말하 는 새로운 사고의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. 안호성 옮김. 갈 무리. 1만 7000원. 진선희기자

이 채 조미경 첫 소설집 '귀가 없다'

"어미를 잃은 것들의 눈물이 됐으면"

"내 소설이 어미를 잃은 것들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. 어둠이 땅 아래로 스미는 밤, 돌아갈 불빛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대신 울어 주고 싶다." 소설집 첫머리에 실 린 '작가의 말'을 먼저 읽어서일까. 작품집에 수록된 단 편들을 하나둘 펼치는 동안 '엄마'라는 이름이 서서히 밀려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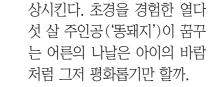
제주 조미경 작가의 소설집 '귀가 없다'는 표제작과 함께 '우리 집에 왜 왔니?', '동거', '한글 공부', '똥돼 지', '그녀, 허궁'등 6편의 단편을 차례로 담고 있다. 그 가 2003년 제주작가회의의 '제주작가'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 묶어낸 소설집이다.

흑백 사진이 떠오르는 풍경에서 저 먼 미래까지 닿는 이들 소설 속 엄마는 대개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깨 지거나, 병들거나,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. 환청 과 환각('귀가 없다'), 외상성 치매('동거') 진단을 받거 나 아들을 낳지 못해('한글 공부') 구박을 받는 식이다. ' 귀가 없다'의 달팽이, '동거'의 개미와 바퀴벌레 등은 가

이별하거나 병든 여자들의 생 가상의 어느 날 '허궁'의 출산 여자아인 어떤 어른으로 클까

등으로 인해 세 상을 향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 지 못했던 인물 들의 처지를 연

족이라는 굴레



'우리 집에 왜 왔니?'엔 오늘 날 제주를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다. 작가는 단층의 작은 학교 와 초록 천연 잔디 운동장, 토 토로 숲의 주술에 걸려들어 제 주로 향한 서울의 학부모들과

어울리는 서연맘의 시선을 통해 이주 열풍의 이면을 그 렸다. "아, 떠날 때가 됐나 봐. 제주다움이 모두 사라져버 렸어"라는 인규맘을 두고 서연맘이 "고상하고 우아한 뻔 뻔함"이라고 하면서도 "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어미로서 의 무능을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부끄러웠다"는 대목에 선 우리 시대 엄마들을 짓누르고 있는 또 다른 무게를 느 끼게 한다.

가상의 어느 날을 상상한 '그녀, 허궁'은 인류가 지혜 롭게 넘긴 것으로 알았던 두 번째 팬데믹이 남긴 불임 이라는 후유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. 인류는 제주 신화 본풀이에서 이름을 따온 허궁no.507이라는 한 대의 로봇으로 착상부터 출산, 육아까지 완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. 이 과정에 부녀 관계 가 부부 관계로 뒤바뀐다는 설정으로 "여자 그리고 엄 마의 자리가 중요하다"(양혜영)는 것을 말하며 "여섯 편의 작품을 아우르는 작가의 메시지"를 녹여냈다. 한 그루. 1만2000원. 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이곳과 다르지 않은 그 지방 도시의 청춘들

오선영 소설집 '호텔 해운대'

그곳에 '인서울'이 아니라 '인부 시가 더 두드러지게 인식"(박혜 산'을 외치는 청춘들이 있다. 복 작거리는 수도권에서 번듯한 직 장을 찾기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지방의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안정적 삶을 보장해주는 길로 여 겨지는 만큼 치열한 공채 경쟁률 을 뚫고 '인부산'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말이다. 다른 지방 이라고 다를까. 부산의 상황에 제 주를 대입해도 이질감이 느껴지 지 않는다.

같은 풍경이 있는 표제작 등 7편 로 진학해 부산이 고향이라고 말 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집이다.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'창작과 비평'등에 발표했던 작품을 모은 했다는 작중 인물의 대사에선 지 것으로 "서울과 비교해 열악한 면

진)되는 소설들을 만날 수 있다.

표제작은 지역 라디오방송 퀴 즈 정답자로 뽑혀 제주도 특급호 텔 숙박권을 기대했지만 결국 호 텔 해운대 일박 숙박권을 받아든 부산에 사는 주인공 수정의 사연 을 그렸다. 부산의 작은 출판사 직원인 수정은 캠퍼스커플로 공 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민우와 호 텔 해운대로 향하는데 그 과정에 지방에 살고 있는 청춘들의 초상 오선영의 '호텔 해운대'는 그 이 포개진다. 서울에 있는 대학으 했더니 같은 과 선배들이 창문만 열면 바다가 보이냐는 말에 황당 방에 대한 편협한 사고가 드러난 모를 띠고 있는 지방으로서의 도 다. '우리들의 낙원', '바람벽' 같



은 소설에도 부산 사투리를 구사 하는 인물들이 어느 곳이나 다르 지 않은 삶의 고민을 전한다.

오 작가는 "내겐 일상이자 보통 의 날들인 이곳의 이야기가 이 책 을 읽는 분들에게도 보통의 이야 기로 다가갔으면 좋겠다"면서 "앞 으로도 내가 발 딛고 있는 어느 곳에서, 계속해서 소설을 쓰겠다" 고 했다. 창비. 1만4000원.

진선희기자

녹조근정훈장



김기홍

녹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동 서 일 동





송지숙 (시부 : **오대진 ·** 시모 : **김윤자 ·** 배우자 : **오명철**)

사무관(정방동장)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군위오씨중파상주계문중회

회장 오명환외종친일동





강수천

제주자치경찰단 경정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처가 가족 일동

장인 : **김만형** 장모 : **임정희** 처남: 김수관(김순정), 김수호(홍미경) 조카: 김규식, 범식, 준식, 소정, 소은

